

# 배 3만·사과 4만원... 추석 과일값도 '금값'

(신고 상품 7.5kg 기준)

(홍로 상품 5kg 기준)

채솟값 이어 과일도 줄줄이 인상  
가뭄·폭염·태풍 등 생육 부진 탓  
생산량·추석 출하량 모두 감소  
품질도 하락해 등급별 가격차 커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솟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수용품인 과일 가격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와 주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사과(홍로 상품 5kg)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 2만7500원 보다 높은 3만5000원~3만8000원으로 예상된다.

배(신고 상품 7.5kg)는 지난해 1만8000원 보다 높은 2만7000원~3만 원으로 전망되고 단감(서촌조생 상품 10kg)은 지난해 1만7200원 보다 높은 3만5000원~3만8000원으로 관측됐다.

포도는 캠벨얼리(상품 5kg)의 9월 가격이 지난해 1만5400원 보다 비싼 1만7000원~1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거봉(상품 2kg) 9월 가격은 지난해 1만200원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보다 높은 1만1000원~1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복숭아(엘버트 상품 4.5kg) 역시 9월 가격이 지난해 1만9000원 보다 오른 2만5000원~2만8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일 가격 상승을 채소와 마찬가지로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봄 냉해와 여름 가뭄과 폭염, 병충해에 이어 태풍 솔릭으로 인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과

일 생산이 크게 부진했다.

지난해와 올해 예상 생산량을 비교하면 사과는 15%, 배는 21%, 단감은 10%, 포도는 10%, 복숭아는 1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출하량 역시 지난해보다 사과가 14.4%, 배가 9.2%, 단감이 13.4% 줄어든 전망이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과일 품질도 전반적으로 나빠져 등급별로 가격 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로 늘리고, 작은 과일 위주로 구성된 알뜰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추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배추와 무 등 채솟값의 오름세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배추는 10kg당 1만3000원으로, 지난해 1만4470원 보다 낮은 평년의 995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는 20kg당 가격이 2만2000원으로, 지난해 1만3950원 및 평년의 1만2110원 보다 높을 전망이다.

당근 역시 20kg당 가격이 7만5000원으로, 지난해 4만4760원 및 평년의 3만8840원 보다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매일 전국 500여개 농협 매장에서 배추 100톤, 무 30톤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며 "무의 경우에는 긴급비축 물량 1000톤을 집중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해양수산부

## 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양치유 국제포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연구단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양치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휴양의학의 권위자인 이성재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연구기관, 산업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한다. 또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된 독일, 일본 등 해외 전문가들도 초대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치유는 바닷물, 바다진흙, 모래,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형 해양치유와 해양관광'을 주제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전략과 국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시너지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치유 모델의 개발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올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3만2000원

aT, 대형유통업체 기준 32만9000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3만2000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aT가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통시장 기준으로

는 6.9%,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는 4.9% 상승한 수치다.

aT는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국지적 호우로 인해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차례상 차림 비용이 오를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쌀이 전통시장 기준 32.6%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무·시금치도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사과와 배는 상품과(上品果) 비중이 줄

었고, 밤·대추는 낙과 피해에 따라 가격이 다소 올랐다.

반면 계란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13.8% 싸졌고, 복어와 조기는 재고량이 넉넉해 가격이 낮아졌다.

aT 관계자는 "추석 전 가계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 더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과 선물세트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지난 5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매칭 수출상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공단

## 중소 베트남길 열린다 '수출개척단' 파견 성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신 남방개척 지원을 위한 '2018 베트남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신규수출계약에 성공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수출개척단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창원 등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자동차부품, 화장품, 전자제품 분야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10개사는 산단공이 선정한 산업단지 수출지원단 타깃기업으로 수출의지가 높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등이 대상이다.

개척단은 5일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현지바이어 100여 개사와 1:1수출상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됐으며 낙우산업(주), 퓨어셀코리아2개사는 실제 수출계약에 성공해 22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올렸다.

6일에는 베트남 진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휴대폰 부품기업 ㈜와이솔의 하노이 공장을 방문해 해외진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황규연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지원에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선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서 바이러스 또 검출

제주공항 중 여행객 소시지서 적발 중국에서 보고된 유행형과 같은 정확산세에 亞 국가 대책 마련 등 분주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국내에서 또 검출됐다.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12일 만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 결과, 순대 1개와 소시지 1개 등 돈육 가공품 2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번 바이러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순대를, 26일 제주공항으로 소시지를 각각 반입하다 적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 내 최초 ASF 발병지인 선양(瀋陽)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인천공항으로 가져온 축산물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에서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서 하태식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남태현 인천지역 검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보고된 바이러스 유행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며 "이 축산물은 가공된 제품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3~4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ASF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

습이다. 5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최로 중국,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의 가축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FAO의 월경동물감염병센터의 완타니 간쁘라빗은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아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시아가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